

퇴근 후 ‘작은 일탈’

“매일 매일 팬클럽만 기도해. 무너지려 해 봐도 상처는 낫지 않아. 가야만해. 그럼 살 길은 또 생겨. 행복만을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 살아 있어야 행복해.”(넥스트 투 노멀 멤버 ‘빛’ 중) 집과 직장만을 오가는 출근·퇴근의 궤도 위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나는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저 평범하고 무탈하게 삶을 뿐인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

그런 일상의 쳇바퀴 위에서 ‘작은 일탈’을 선택한 직장인들이 있다. 퇴근 후 집이 아닌 연습실로 모여 한 편의 뮤지컬을 무대 위에 올린 직장인 극단 ‘ALIVE’의 이야기다.

직장인 극단 ‘ALIVE’가 지난달 29~30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을 무대에 올렸다. 광주에서 일반인 극단이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뮤지컬을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LIVE는 올해 광주를 기반으로 문을 연 신생 직장인 극단이다. 모토는 ‘Today, Here, Right now(오늘, 여기, 지금)’. 배역 뒤에 숨지 않고 무대 위에서 ‘살아 있는 지금’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단원은 총 10명이다. 특수교사, 학원 강사, 공기업 직원, 상담사 등 서로 다른 직업과 일상을 지닌 이들이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췄다.

연출을 맡은 이수민(31) 씨는 “우리 극단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도, 성별도, 직업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며 “10명이 힘을 합쳐 연기와 연출은 물론 무대 바닥판을 까는 일부터 세트 설치, 대도구 제작까지 직접 해냈다”고

직장인 극단 ‘ALIVE’ 첫 공연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성료 한명 한명 열정으로 매일 연습 연기·연출·세트 설치까지 뿌듯

웃었다.

단원 대부분은 원래 연극과 뮤지컬을 좋아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도 있다. 50대 단원 이문희 씨는 대학에서 뮤지컬을 전공 중인 아들을 지켜보며 “가족으로서 뮤지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해보고 싶었다”며 극단의 문을 두드렸다.

다양한 사람이 모인 만큼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다. 특히 연습 시간 조율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 광양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단원은 광주까지 왕복 4시간을 오가야 했고, 직업 특성상 배를 타고 섬으로 출장을 다녀온 뒤 다시 올라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단원들은 뮤지컬에 대한 열정 하나로 매일 연습실에 모였다.

이들이 창단 후 첫 작품으로 선택한 것은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이다. 2009년 초연 이후 풀리처상과 토니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뮤지컬로, 양극성 장애를 겪는 엄마 다이애나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다. 약물치료와 전기충격요법, 트라우마와 상실, 그리고 ‘평범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묵직한 질문이 록 사운드와 함께 밀도 있게 펼쳐진다.



광주 직장인 극단 ‘ALIVE’가 지난달 29~30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을 선보였다. 지난 공연의 한 장면. <ALIVE 제공>

“나는 무대 위에 선다”

극단이 이번 공연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주인공 다이애나의 감정선이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상과 감정의 파동, 가족 간의 균열과 트라우마가 과장되거나 소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했다.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 박규창(30) 씨에게 이번 작품은 남다른 의미였다. 그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처음엔 혹시 작품이 편견을

강화하지 않을까 걱정됐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연습을 이어가면서 작품의 진정성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한다. 박 씨는 “정신질환자만큼이나 큰 고통을 겪는 건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이라며 “이번 작품이 환자 개인이 아닌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신안교육지원청 소속 특수교사 신의경(29) 씨는 “극 속 곳간 가족이 장애학생 가정과

자연스럽게 겹쳐 보였다”고 했다. 장애를 진단받은 뒤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아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평범함 그 주변 어딘가’를 향해 애쓰는 부모님들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 넘버 ‘빛’의 가사처럼 여러 날을 구름과 비 속에서 보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마음을 학생과 부모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혔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의 민주인권평화전은 5·18, 12·3계엄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렀던 노래와 관련된 자료들을 선보였다. 12·3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들. <광주일보 자료>

예술이 치유한 상처…내란 이후 다시 일어난 공동체

5·18 평화전·미술제·음악제 등 광주정신 콘텐츠로 의미 되새겨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1년. 그날의 충격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를 또렷하게 드러냈다. 5·18의 토대 위에서 성장해 온 광주의 문화·예술계는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는 전시와 공연, 출판물이 잇따라 등장하며 흔들린 시간의 의미를 새로 써 내려갔다.

특히 올해는 5·18을 다룬 작품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리며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광주시립미술관은 4월부터 8월까지 민주인

권평화전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를 열고 1980년대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올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 ‘오월의 노래’, ‘광주출정가’ 등을 새롭게 조명했다. 전시는 12·3 비상계엄에 맞서 거리로 나선 2024년의 젊은 세대와 당시의 노래를 음악이라는 매개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광주민주예술인단체총연합회는 올해 ‘예술만 장전’의 주제를 ‘빛의 혁명’으로 정하고, 5·18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켜가겠다는 새로운 세대의 약속으로 확장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 ‘빛의 혁명, 색으로 되새기다’도 마련해 참가자들이 직접 만장을 그리고 색을 입히며 5·18의 의미를 스스로 새겨볼 수 있도록 했다.

정진영 총감독은 “이번 만장전은 거리의 응원봉 물결과 ‘키세스 시위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며 “올해는 ‘과거가 현재를 구했음’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더욱 각별했다”고 말했다.

민주미술인협회광주지회와 은암미술관이 주관한 ‘2025 오월미술제’는 ‘생물민주주의,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선언하다’를 주제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기체로서의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췄다. 박태규의 ‘파면불꽃’은 거센 불꽃 사이에 ‘윤석열 파면’, ‘탄핵’ 등의 문구를 배치해 민심의 분노를 시각화했고, 김병택의 ‘다시 만난 세계’, 박철우의 ‘12·3 내란’, 김우성의 ‘유령이 온다’ 등은 민주주의를 다른 각도에서 성찰하도록 이끌었다.

창작극악단 도드리는 음악극 ‘끝나지 않은

오월’을 무대에 올렸다. 평범한 부부가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극을 맞는 이야기로, 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다.

푸른연극마을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신념을 조명한 연극 ‘사형수 김대중’을 선보였다. 민주주의를 위해 군사독재와 맞서 싸웠던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통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이었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을 대표하는 “시민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다시는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예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선, 미, 공간’

분기점에서 마주하는 ‘전란한 초목의 시간(2)’은 이색적인 감성을 환기한다. 초목과 분홍의 색감, 선과 면, 공간의 어우러짐은 작가만의 사유와 고유한 작업의 방식이 교차된 결과다.

박우리 학예실장은 “박승순 작가의 작품은 캔버스에 오일, 아크릴이라는 서양의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라며 “현대적 감각

이면에 드러워진 우리 고유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작가는 추계예술대 서양학과를 졸업했으며 파리1대학 석사 미학과를 수학했다. 추계예술대 서양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공간 설계-마주한 아름다움’ 등 다수 개인전 및 그룹전에 참여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박승순 ‘선 그리고 색, 선율추상’전…28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나는 ‘침묵의 장(場)’으로 조형화한 추상 작업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작가의 말은 예술을 대면하는 이의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는 듯하다. ‘침묵’을 매개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세계를 아우른다는 의미일 테다. 침묵, 추상, 조형이라는 핵심 키워드는 ‘따로 또 같이’의 의미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오는 28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1전시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박승순 작가 작품전. 이번 전시는 경기도 광주 영은미술관과 협약을 통해 순회전으로 기획됐다.

캔버스와 나무 오브제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색채의 선과 면이 발현하는 공명(共鳴)은 ऐसा롭지 않다. ‘선 그리고 색, 선율추상’이라는 전시 주제가 말해주듯 작품은 경계를 허물며 관객들로 하여금 감성적 교감을 유도한다. 일견 세련돼 보이지만 작품의 기저에는 한국적인 감성 등이 드러워져 있다.

작품 ‘선, 미, 공간’은 선과 공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침윤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선, 공간은 새롭게 확장 구형되며 이 과정에서 심미적 감흥을 느낄 수 있다.

가을의 끝자락 초겨울의 시작이라는 시간의

‘3인 3색-댄스 커넥션’

댄스컴퍼니 Sun&Friends

6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보이지 않는 시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열고, 그 흔적은 몸에 남아 새로운 움직임이 된다. 관계가 얹히고 다시 풀려 나오는 과정을 무용으로 풀어내는 창작무대가 펼쳐진다.

댄스컴퍼니 Sun&Friends의 ‘3인 3색-댄스 커넥션’이 오는 6일 오후 5시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202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제31회 전국무용제 대통령상을 거머쥔 단체가 선보이는 신작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작품의 주제는 ‘매듭-The Body Weaves’.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세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선과 질감으로 풀어낸다.

1장 ‘파놉티콘(Panopticon)’에서는 감시와 규율을 모티브로 보이지 않는 시선이 신체에 각인되는 긴장과 내면의 흔들림을 다룬다. 현대인의 감시 내면화라는 주제가 무용수의 몸을 통해 시각적으로 변해 간다.

관계의 구조를 짚어내는 2장 ‘결, Knotting’은 사람 사이에 남는 감정의 결을 표현한다. 얹히고 풀리는 신체의 흐름 속에서 관계가 단절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와 이어짐을 보여주며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낸다.

3장 ‘MESH’는 개인적 움직임이 집단으로 확장되는 순간을 그린다. 각기 다른 신체의 리듬이 충돌하고 다시 연결되며 그물처럼 얽힌 ‘공동체적 몸’이 무대 위에 구축된다. 완성된 형태가 아닌 끊임없이 변주되는 관계의 장(場)을 상징한다.

이번 무대의 총연출 및 안무감독은 선유라 대표가 맡았다. 고동훈, 윤혁중, 박진호, 김유찬 등 Mnet ‘스테이지파이터’에서 두각을 보인 현대무용수들이 참여해 작품의 에너지를 더한다. 전석 2만원, 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